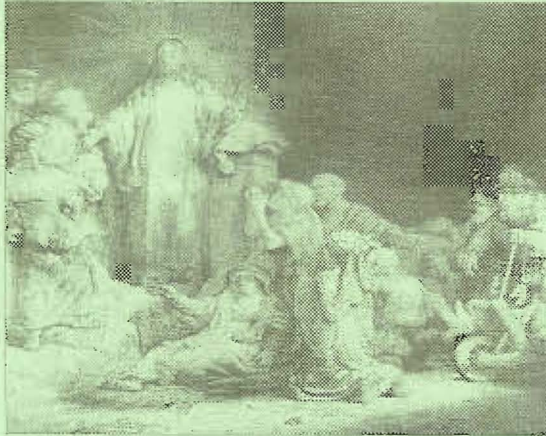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 순교자 성월
제33권 40호(다해) 2013-9-1

[묵상]



예수에게
병자와
어린이를
데리고
오다

<레브란트
17c>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자신에게 걸맞은 자리로 가야합니다.
주제님은 자리에선 눈총을 받거나
결국 끝자리로 밀려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추는 이는 높아지죠.
인간의 관계는 늘 높낮이로 평가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보답을 해야 인지상정이라 여겨왔습니다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저희가 보답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초대할 수 없는 곳으로.
저희에게 금전을 베푸시면
저희가 금전으로 갚을 수 있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희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
이렇게 저희가 되갚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봅니다.
주님은 저희가 되갚을 수 있는 것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창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김석기 스테파노, 손영달 & 강소아, 윤해영 클라라 가정, 유현주 마리아 막달레나 가정, 오현희 골롬바 가정,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이명자 로사, 박순희 로사, 이용식 베드로, 엄익수 바오로, 유정복 베네딕다, 임현기 마르코, 이경웅 야고보, 이현호 요한,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주호 요셉, 김동욱 요아킴, 주용범 아브라함, 정학순 발바라, 김경호 세실리아 & 이현준 베드로 & 이크리스틴 (생)이윤조 클라라, 박인규 요셉, 김기준 안젤라, 김형준 요한, 김복희 로사리아, 우영희 엘리사벳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17-18.20.28-29

화답송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주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데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8-19.22-2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 음 루카(Luke) 13,12-30

영성채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3	216	210
봉헌	255	269	269
성체	주 품에 품으소서	304	287
파견	기뻐하며 왕께	200	34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결 론

▶ 말씀과 기쁨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당신 은총을 교회에 부어 주시어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뜻을
알려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구원의 말씀을 신빙성 있
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해서 우리는 요한 1서로 되돌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 보았습니다. 우
리는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선포를 들었고, 그
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것, 신앙의 표를
지니고 우리보다 앞서 간 이들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말씀을
듣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사랑의 증거를 살고 있는 이들과 친
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하듯이
-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1요한 1,4)하기 위한 것입니
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우리에게, 요한 성인이 말하는 모
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친교를 이룩하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생명
에서 솟아나오고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깊은 기
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기쁨입
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갈라 5,22 참
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생명의 열
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의
샘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표면적이고 일시적
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다는(요한 6,68 참조) 인식에서 나오는 기
쁨입니다.

▶ “말씀의 어머니이며 기쁨의 어머니”

124). 하느님의 말씀과 기쁨 사이의 이 긴밀한 관계는 하느님
의 어머니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사벳 성녀의 말을
기억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마리아께서 행복하신 것은 믿음을 지니셨기 때문이고, 믿으셨
기 때문이며, 마리아께서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태중에 하느
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어 이 세상에 전해 주셨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두 본문에서 들음과 기쁨의 이 신비를 우리에게 보
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루카 8,21). <◆계속>

천국의 열쇠

조선 시대의 순교자 황일광 시몬(1757~1802년)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된 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신분의 벽이 높았던 당시, 사회에서 천민인 자신을 형제처럼 여겨주는 신자 공동체를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서 거기에는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니다.”(제2독서) 하느님을 직접 뵈고 예수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중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이미 이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필요한 은총을 선사해 주시며, 신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친교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씨앗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를 황일광 순교자처럼 지상의 천국으로 느끼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처럼 보잘것 없는 이들을 감싸안고 보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에 편승하여 크고 화려하고 힘센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셨는데, 잔치 석상에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이들처럼(복음) 자리다툼을 하고, 위상 높이기엔 연연하지는 않는지요?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창세 3,5 참조) 때문에 순명하지 않아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교단은 천국 문을 닫아걸는 빗장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은 하느님의 큰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제1독서)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일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 각자의 처지에 맞게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천국의 맛과 분위기를 낼 것입니다.

현대에는 자신을 앞세우고, 자아실현과 개인의 자유를 거의 절대시하는 풍조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시하는 겸손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 재산과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길이었지만, 실상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겸손이 천국의 열쇠다!’

그 열쇠를 받아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구역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 성시간 : 5일(목)
저녁 미사와 함께 진행

- ◆ 성모신심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9월19일(목)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2일(주일:본당의 날)
- ◆ 오늘 9월첫주일(1일) 학생미사는 한국어로 봉헌합니다.
-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오늘주일(9월1일)부터 오픈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 구역장 / 반장모임 9월8일로 연기합니다
매월 첫주일에 갖는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모임을 레이버 데이(노동절)연휴관계로 9월 둘째주일인 8일로 연기합니다.
 - 장소 : 토런스 아서원 (오후 6시)
 - 문의 : 소공동체부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 ◆ 백삼위 성모회 모임
 - 일시 : 9월8일 오후 1시 친교장
 - 문의 : 성모회장 권순길 체칠리아 ☎(310)365-2183
- ◆ 아동비만방지 제3회 '사랑나누기 마라톤대회' 참여합니다.
 - 일정 : 9월14일(토) 오전 8시~낮 12시
 - 출발점 : LA 윌턴극장앞(윌셔+웨스턴)

- 참가비 : \$10(10세이하는 참가비 없음)
- 참가신청 : 해피빌리지 ☎(213)368-2607
- 문의 : 백삼위 마라톤동호회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연합회 2013 성경퀴즈대회

- 일시 : 9월21일(토)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아테시아, 토런스)
- 성경범위 : 사도행전, 바로로서간 전체
- 문의 : e-mail uykcinhim@gmail.com
- 본당에서 작년에 우승한 배론청년회가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한가위 맞이 요셉회 친목 모임

- 일시 : 9월21일(토) 오전 10시 라이언파크
- 차편준비 :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성당 주자장
- 부부동반 참석(푸짐한 음식과 선물 준비)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맞아 감사행사

- 일시 : 9월27일(금) 저녁미사후
- 장소 : 강당
-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 문의 : ☎(310)780-0369
- 사무실에 비치중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일(주일) : 레이버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9월8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김광자	김성현	김 욱	남성철
	박선희	박종열	박현주	서성용	소성덕	양영관
	오수인	오신재	육근주	윤선희	윤화경	이경수
	이경태	이근태	이미경	이병우	이상곤	이우성
	이윤무	이인석	임한나	장영진	장정진	정정연
	조준제	최기호	최길주	홍석인		
합계 : \$3,375						
주일미사 헌금 : \$2,985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김 욱	남성철	박선희	서성용
	소성덕	양영관	오수인	윤선희	윤화경	이경수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상곤	이우성	이윤무
	이인석	임한나	장정진	정정연	조준제	최기호
	최길주	홍석인				
합계 : \$2,185						

공지사항

◆ 주일학교 전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새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전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수업일시 :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강당
- 문의 : 신동윤 벤첸시오 전진교리교사 ☎(310744-5878)

◆ 주일학교 교리교사 세미나

- 날짜 : 오늘주일(8일) 낮 12시~3시
- 강의시간 : 오후 1시30분~2시30분(성전)
- 강사 : Steve Davoren 신부님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복사단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첫영성체한 3학년이상
- 첫모임 : 9월21일(토) 오후 5시 성전(기존단원, 부모 꼭참석)
- 시험 : 주모경, 사도신경(나체아신경 중 택일) 암기

◆ 한국학교 개학 및 수업시간 변경

- 개학 : 8일 낮 12시30분 각교실
- 학부모설명회 : 8일 오후 3시
- 수업시간 변경 : 낮 12시 30분~오후 3시30분

◆ 한국학교를 위해 기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비대주시는 익명의 교우, 양업회, 컴퓨터 기증해주신 박봉성 안드레아 교우, 기도해주신 분들.

◆ 주일학교 인터넷교사 모집

- 대상 : 대학교 2학년이상 남녀학생
- 업무 : 주일학교 참관 및 교리교사 보조역할
- 근무 : 본인이 원하는 주일 언제나 참석
- 접수 :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e메일로 접수
pius103ss@gmail.com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신현화 헬레나 213-200-9538 9/6(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701-6343 9/14(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3(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교복 레오 328-1827 9/15(일) 오후 5시
	2	심옥방 마카엘라 999-5808	이형삼 요셉 375-7397 9/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9/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9/20(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4(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미숙 마카엘라 850-2822 9/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동호 하삼바오로 404-1607 9/16(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9/2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9/13(금) 오후 7시
	2	김명제 아가다 866-877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민희석 요한 818-1799 9/7(토) 오후 6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선제 파오로 617-3568 9/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레이버데이 연휴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	--

남가주 소식

◆ 제17회 남가주한인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 오프닝리셉션 : 9월14일(토) 오후 5시
- 전시기간 : 9월14일~27일(금)
- 장소 : Lee & Lee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지도신부 :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출품작가 : 21명(판매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 회장 제인 장 (818)667-2877

◆ 테메쿨라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9월20일(금)~21일(토) 오후 2시 파견미사
- 지도 : 정창용 타데오 신부(예수의 꽃동네형제회)
김태영 야고보 수사(예수의 꽃동네형제회)
- 참가비 : \$80(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성경, 성가책)
- 문의 : ☎(951)302-3400 전해경 발트로메오 수녀

Q/A

공동선이란 무엇이며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은 세상의 물은 순리에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삶의 목적지인 하느님을 향해 가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인간은 혼자서 생존할 수는 있으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회를 형성합니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입니다. 사회 안에서 사람은 주어진 재능을 키우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사명은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부의 외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1877항)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일치하는 데에도 평생이 걸리는데, 거대한 사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수학에서 서로 다른 분수가 하나의 수로 통합될 수 있는 이유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보여주는 다양함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각양각색이지만, 서로가 일치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우리 모두가 최종 종착지인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인간’이란 사실에 있습니다. 굶주림의 허기를 느껴본 사람은 이웃의 배고픔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가슴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은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행복의 향구를 찾아 거친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등 모든 인간을 태우고 갑니다. 바다에 항상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물질주의의 바람은 거세고 쾌락주의의 파도는 높아만 갑니다. 폭풍우의 시련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구명조끼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항로 잃은 배는 침몰할 것이며, 침몰은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 향구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한 인간은 영적이고 세속적인 두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차원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이 공동선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진리에 바탕을 둔 공동선은 이 세상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줄 전령사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

은 겸허함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로마 12,10)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나의 기억, 아이의 기억

이번 주일에도 미사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5년째 <황정민의 FM대행진>을 진행하고 있기에, 저의 아침은 늘 생방송 중입니다. 토요일까지 일하는 신랑의 경우에도 일요일 늦잠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꿀맛이죠. 아이들도 모처럼 만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단 하루의 휴일 아침을 키크거리며 뒹굴거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일요일 아침 만큼은 맘놓고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여유 있는 아침을 즐기고 싶습니다.

‘꼭 가야 해? 안 가면 안 돼?’, ‘한 시간만 있다가 가자.’, ‘저녁 미사 드리지.’ 가지 않겠다는 말보다 한 시간만 누워있다 가자는 말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악마는 하지 말자는 말은 절대 안 하고, 다음에 하자는 말로 꼬신다더니...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따 갈까?’가 되고, ‘저녁에 갈까?’ 그러다가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가야겠다.’가 되기 마련입니다.

신자가 아닌 신랑에게 일주일의 한 번 미사 참례는 참 기이한 일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미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성당 유아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흠모하는 일들을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저조차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사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조용해지면 여기서 ‘뽀’, 거기서 ‘뽀’하고 미사를 드리는 건지, 그냥 성당에 나와서 아이를 보는 건지 ‘이 시간이 효험은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습관적으로 성당을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 출석도장을 찍고 나면 왠지 가벼운 죄는 용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일이 꼬일 때면 미사 참례를 게을리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보로 망원경을 만들어 신부님을 보다가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벌을 서기도 했고, 성당 수련회에 가서는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겨서 더욱더 성당에 열심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성당에서 친구들과 4층사를 만들어 주일학교가 끝나면 피구나 오징어, 축구에 열을 올리기도 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제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신에 대한 부정과 종교에 대한 회의로, 회사에 들어와서는 바쁜 방송국 핑계로 미사 참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인지 제게 성당에 같이 가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씀은 하셨지만, 절대 강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는 모습을 늘 보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목회 활동을 비롯해 성체분배 봉사까지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누구는 혼자라도 미사를 다니라고 하지만, 전 아이들에게 성당의 분위기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린 시절 성당에서 뒹눴던 기억 밖에 없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나오는걸 보면, 저는 아이들이 놀더라도 성당 앞마당에서 놀게하고 싶습니다. 조기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어도 먼 훗날 미사 참례를 했던 걸 기억한다면, 혹시나 하느님께 등돌리는 날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황정민 아녜스 / KBS 아나운서